



## 화제

## 허동수

## LG-Caltex정유 대표이사 부회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지난 3월 15일, 제27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LG-Caltex정유의 허동수 부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1973년에 입사해 현재 부회장으로서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로 키워 온 허동수 부회장의 경영이념과 업적에 대해 알아 본다.

금탑산업훈장은 국가경제발전 진작으로 1962년에 제정된 훈장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산업훈장은 등급에 따라 금, 은, 동, 철, 석으로 나뉘는데 그중 금탑은 산업훈장 중 최고등급 훈장이다.

경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훈장으로서 허동수 LG-Caltex정유 부회장은 국제 석유·화학업계에서

'한국의 닥터 허'로 불릴만큼 해박한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화학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2년간 쉐브론 리서치사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다. 1973년에 LG-Caltex정유에 입사, 1994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허 부회장은 혁신활동 정착과 21세기 세계종합에너지서비스 분야의 리더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LG-Caltex정유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

허동수 부회장의 경영철학은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정직, 공정, 성실을 바탕으로 한 기본에 충실했던 '정도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소 허부회장은 '정당한 룰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격경영은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성장의 필수요건'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최고의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바 사람을 최고 가치, 최고 자산으로 여기고 전임 직원들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를 위해 인간존중 경영을 펼치고 있다.

국제 석유·석유화학업계에서 '닥터 허'로 불릴만큼 해박한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경영인

허 부회장은 21세기 LG-Caltex 정유의 새로운 비전을 '종합에너지서비스리더(The Leader in Providing Total Energy Service)'로 정했다. 허동수 부회장의 경영혁신 활동은 크게 생산성 중심의 경영활동과 조직역량 강화로 나뉜다.

우선, 생산성 중심의 경영활동을 보면, '94년 대표이사 취임후 ISO9002, ISO14001 등의 인증획득을 계기로 품질 및 환경 관련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작업을 통한 비효율성 제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DRA기법 도입을 통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최적방안을 도출해냈고,

PIP(Profit Improvement Program) 활동을 통한 공장 생산성을 극대화했으며, MIP(Management Innovation Program) 도입으로 회사 전 부서에 걸쳐 인력, 조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해 선진 경영기법을 회사 사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접목시켰다. 또 한가지 '95년 국내 최초로 <테크론>이라는 휘발유 브랜드를 도입하면서 휘발유 브랜드시대를 개척하였으며, '99년 <SIGMA 6>를 출시하여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밀레니엄프론티어 대상을 수상하는 등 휘발유 브랜드화를 한 단계 version-up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봉제·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으로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오는 2005년에는 세계 TOP5 정유공장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현재는 완벽 무결점을 지향하는 6시그마 활동을 모든 경영혁신 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원유도입에서 고객 서비스까지 회사의 업무 전 과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21세기 세계 초우량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 및 천연가스사업, e비즈니스사업으로 진출하여 명실공히 세계적인 토탈에너지 서비스기업으로의 변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허동수 부회장의 빼놓을 수 없는 업적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와 외자유치이



테크론에 이어 '99년 <SIGMA6>라는 자사 휘발유 브랜드 출시로 휘발유 브랜드화를 한 단계 version-up시킨 허동수 LG-Caltex정유 부회장의 이번 수상은 국가산업 태동기부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온 우리 정유업체에게 있어 뜻 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특히, '97년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시장에서 3억달러의 상업어음을 발행하였으며, IMF위기시인 '97년 12월에 합작회사인 Caltex사로부터 5억달러에 달하는 Facility Loan을 조달, 외환위기에 처한 국내경제의 조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정직, 공정, 성실을 바탕으로 한 기본에 충실했던 '정도경영'을 경영철학으로**

세계최고수준의 업무생산효과를 올리기 위해 LG-Caltex정유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해, 향후 6년간 1,2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고, 공장통합정보시스템(IRIS)에 의하여 연간 2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업무생산성을 실현하고 있다. LG-Caltex정유는 회사내에 공정문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윤리규범 및 세부 실천지침 제정 및 실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우수회사로 지정되는 등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해왔다. 그리고, LG-Caltex정유는 세계최초로 윤활유 용기를 기존 Tin Can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프로필렌 용기로 대체, 완제품 폐용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앞장서고 있으며,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환경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가산업 태동기부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온 우리 석유업체에게 있어 이번 LG-Caltex정유 허동수 부회장의 금탑산업훈장 수상은 뜻 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 업계는 국가의 발전이 업계의 발전이고 그것이 곧 우리 개개인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협업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

〈글·박진호〉